

LG생활건강, 올영 어워즈 3관왕 차지

비온드·브이디엘 브랜드 경쟁력 입증

LG생활건강은 뷰티 브랜드 ‘비온드’와 ‘브이디엘(VDL)’이 2025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의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가 핸드케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과 ‘커버 스테인 하이커버 쿠션’은 각각 베이스 부문 MD’s Pick(앤디스 픽)과 트렌드 부문 ‘Rising Star(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비온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는 1분당 약 9개가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인기 제품이다. 지난 2005년 4월 출시부터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655만 개를 기록했다.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의 누적 판매량은 2023년 3월~2025년 10월



비온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 / LG생활건강

기준 약 270만 병을 넘여섰다. 특히 2023년 재단장을 거치면서 3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11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LG생활건강의 탄탄한 제품력을 알아봐 주고 구매해 준 고객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LB에프앤비, ‘홍삼빌 호텔’ 재단장

반려동물 친화 설계… 특수 서비스 제공

HLB에프앤비가 전북 진안에 위치한 ‘홍삼빌 호텔’을 반려동물 친화 시설로 재단장하며 특수 관광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삼빌 호텔의 전체 40개 객실 가운데 일부를 반려동물의 안전과 투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반려동물 동반 객실’로 선보인다. 반려동물의 관절 보호를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급 에어사워기, 반려동물 전용 어메니티 등이

구비됐다.

호텔 실내외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 시설과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또 진안의 천혜 자연까지 더해져 반려동물 세대가 최적의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HLB에프앤비는 반려동물 전문 인력도 고용했다. 홍삼빌 호텔 전체 임직원은 ‘반려견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전문성을 갖춘 특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미장센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 출시

삼푸·트리트먼트·오일세럼 등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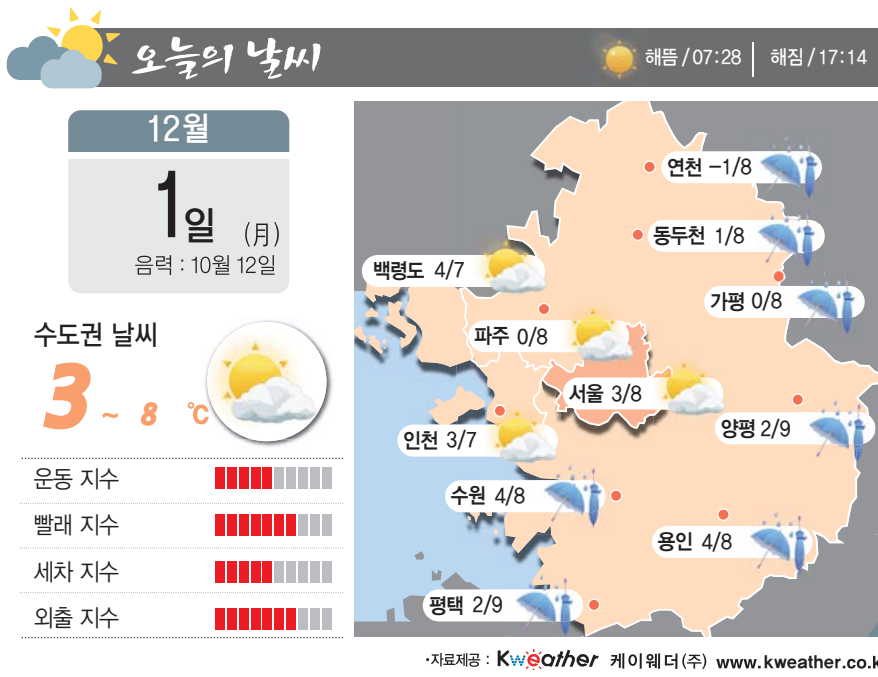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헤어 패션 브랜드 미장센에서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장센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은 고영양 제품군으로 집에서든 살롱 수준의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쿡에서 추출한 저분자 단백질 성분 ‘뉴트리-소이 프로틴’ 복합물을 2만 ppm 함유해 손상된 모발에 즉각적인 부드러움과 윤

기를 선사한다.

이번 신제품은 풍성한 거품으로 행구는 순간까지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삼푸’, 영양감을 급속 충전하는 ‘트리트먼트’, 고급 광채를 갖춘 ‘오일세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트리트먼트는 삼푸, 오일세럼과 함께 3단계로 사용했을 때 그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향취와 골드 색상 제품 디자인이 고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통증 관리 격차 해소’ 보고서 발간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성 재확인

타이레놀 등 광범위하게 사용
주요 진통제 대비 신체 부담 낮아
“권장용량 지키면 장기 사용도 안전”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 용량을 지킨다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진통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은 접근성이 높지만, 그동안 간독성(약물에 의한 간의 손상)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30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은 최근 발간한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통증 관리 격차 해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 용량을 지키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경우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진통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의료진 등이 참여해, 각국 임상 환경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활용하는 실제 경

험과 전문적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타이레놀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보다 효과가 낮다는 인식과 달리, 기저질환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반태현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 같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에 포함 기저질환을 동반하거나 고령인 환자군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 중 하나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북경대학병원 리앙 첸 교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NSAIDs보다 부작용 위험이 낮아 고령자나 심혈관, 위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마운트알베르니아병원 호콕 유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출혈 위험

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된다”며 “반면 NSAIDs는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서는 주요 진통제 계열인 아세트아미노펜, NSAIDs,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약리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위장관·심혈관계·신장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NSAIDs는 위장관 출혈,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높으며, 오피오이드는 의존성 및 호흡억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86년부터 경증~중등도 통증 치료 시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 치료제로 권고해왔다. 미국노인의학회(AGS)와 미국심장협회(AHA) 역시 고령자 및 심혈관질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차세대 항암 혁신신약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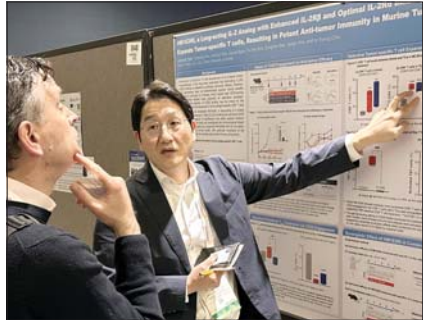
‘HM16390’ 4건 포스터 발표
전신독성 반응 저감 기전 규명

한미약품이 기존 전임상 연구에서 약성 중앙이 전부 사라지는 ‘완전관해’를 입증한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진전된 성과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렙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 등 4건을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IL-2(인터루킨-2)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차세대 IL-2 결합체 기반 면역항암제로, 한미는 독자 플랫폼 기술인 ‘렙스커버리’를 적용한 치료제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인 유전자 재조합 IL-2(aldesleukin)는 혈관누출 증후군과 사이토카인방출 증후군 등 심각한 부



한미약품 R&D센터 최재혁 그룹장(오른쪽)이 지난날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렙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작용이 수반된다. 한미약품의 HM16390은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항종양 효능과 안전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16390이 종양이 아닌 혈중에서만 조절 T세포(Treg)를 일시적·선택적으로 증가시켜 과도한 면역반응을 완화함으로

써 전신 독성 반응을 줄이는 기전을 직접 규명했다. 다른 발표에서는 HM16390에서만 ‘종양 특이적 CD8+ T 세포(TST)’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활성화된 형태로 T 세포 표면에 PD-1을 발현하는 특징이 확인됐다. 안전성은 물론 항종양 효능에도 기여하는 근거를 입증해 차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HM16390을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서 단독 투여 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약물로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HM16390 단독 투여 및 키트루다 병용 투여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군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HLB제약, 에독사반 등 5개 제네릭 의약품 생동성 입증

펠루비프로펜, 몬테루카스트 등 대상

HLB제약은 경구용 항응고제 ‘에독사반’의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을 포함해 올해 총 5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판정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펠루비프로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프란루카



스트’,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몬테루카스트’ 등이다.

해당 5개 약물 성분의 합산 시장 규모가 약 5000억원에 달해 HLB제약은 생동성 입증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엔잘루타마이드’ 제네릭 품목허가도 추진

하고 있다. 향후에는 항암제 제네릭 의약품 확보에 중점병원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박재형 HLB제약 대표(사진)는 “의약품 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제네릭 개발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항암제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